■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9-66.
http://doi.org/10.17948/kcs.2020..87.39

진본 화엄경 권20의 미해독 구결점에 대한 해독 시도*
—선어말어미 '-오-', 연결어미 '-며', 조사 및 어미 구성의 '-과', 부정문 관련 구결점을 중심으로—

문현수(文玄洙)**

목 차

1. 머리말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진본 화엄경 미해독 구결점의 해독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자료인 진본 화엄경 권20에 현토된 구결점 가운데 아직 미해독이거나 해독이 되었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구결점의 해독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어말어미 '-오-'와 관련되는 12(·), 14(·), 12(|)는 각각 'ㅅㄱ', 'ㅅㄕ', 'ㅎㅋㄱ'으로 해독된다. 둘째, 연결어미 '-며'와 관련되는 52(·)는 'ㅅㅎ'로 해독된다. 셋째, 조사와 어미에 쓰인 '-과'와 관련되는 54(i), 54(/·), 54(\·), 35(|·)는 각각 'ㅅ', 'xㅅ', 'ㅌㅅ', 'ㅐ'로 해독된다. 넷째 부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36274).
** 숭실대 일어일문학과 박사후연구원.

문과 관련되는 32(·), 35(./), 45(|·), 53(\·)는 각각 ‘ㅁㄱ’, ‘矣ㅐ’, ‘ㅌ’, ‘〈ㅅ〉’로 해독된다.

주제어: 석독구결, 진본 화엄경, 구결점, ‘-오-’, ‘-며’, ‘-과’, 부정문.

1. 머리말

본고는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자료인 진본 화엄경 권20에 현토된 구결점 가운데 아직 미해독이거나 해독이 되었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구결점의 해독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 모든 미해독 점토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해독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독을 시도할 것이다.

본고의 해독의 대상이 되는 구결점은 12(·), 12(|), 14(·), 32(·), 35(./), 35(|·), 45(|·), 52(·), 53(\·), 54(i), 54(/·), 54(\·)로 총 12개이다. 이들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하는 구결점: 12(·), 14(·), 12(|)
② 연결어미 '-며'와 관련되는 구결점: 52(·)
③ 조사/어미 '-과'와 관련되는 구결점: 54(i), 54(/·), 54(\·), 35(|·)
④ 부정문과 관련되는 구결점: 32(·), 35(./), 45(|·), 53(\·)

아래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독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용례를 검토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크게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료와 화엄경 계통의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화엄경 계통의 자료는 주본 화엄경 자료와 진본 화엄경 자료로 다시 세분된다. 鄭在永[1]에서는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

1)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華嚴經』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2001.

결 자료는 초조대장경보다 앞선 10세기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이며 구결점의 기입 시기도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 자료의 구결점 기입 시기보다 앞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또한 朴鎭浩[3]에서는 주본 화엄경과 진본 화엄경은 단점의 경우 대부분 해독의 결과가 일치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으며, 단점 이외의 구결점은 해독이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4] 이처럼 진본 화엄경과 주본 화엄경은 같은 화엄경 계통의 석독구결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함께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두 계통의 구결점 해독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독립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권20의 해독은 鄭在永,[5] 南豊鉉・李丞宰・尹幸舜,[6] 남풍현,[7] 朴鎭浩,[8] 김성주,[9] 李丞宰 외[10] 등에서 시도된 바 있다. 鄭在永[11]과 南豊鉉・李丞宰・尹幸舜[12]에서는 주로 서지적인 측면에서 이 자료를 다루면서 비교적 간단히 해독할 수 있는 구결점들을 다루었다.[13] 남풍현[14]에서도 기본적인 자료의 해독 방법과 해독에 성공한 구결점들을 소개하고 있다.[15] 이후 朴鎭浩[16]에서는 구결학회의 소장 연구자들과 점토 자료 강독회에서 강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본 화엄경 권20에 현토된 구결점 전반에 대한 해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특징적인 구결점들의 해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

2) 같은 글, 33-56면.
3) 朴鎭浩,「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吐 解讀」,『口訣硏究』제16집, 口訣學會, 2006.
4) 같은 글, 173-208면.
5) 鄭在永, 앞의 글.
6) 南豊鉉・李丞宰・尹幸舜,「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訓點語と訓點資料』第107輯, 東京: 訓點學會, 2001, 69-102면.
7) 남풍현,「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中心으로」,『朝鮮學報』제183집, 朝鮮學會, 2002, 1-22면.
8) 朴鎭浩, 앞의 글, 2006.
9) 김성주,「주본화엄경과 진본화엄경의 점토석독구결 비교 연구」,『규장각』제30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9-51면.
10) 李丞宰 외,『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4』, 태학사, 2009a.
11) 鄭在永, 앞의 글.
12) 南豊鉉・李丞宰・尹幸舜, 앞의 글.
13) 鄭在永, 앞의 글; 南豊鉉・李丞宰・尹幸舜, 앞의 글.
14) 남풍현, 앞의 글, 2002.
15) 같은 글.
16) 朴鎭浩, 앞의 글, 2006.

고 있다.[17] 그리고 김성주[18]에서는 주본 화엄경 권31과 진본 화엄경 권20이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 주목하여서 몇몇 구결점의 해독을 시도하였다.[19] 이후 점토 자료 강독회에서 이루어진 진본 화엄경 권20에 대한 강독 결과물은 李丞宰 외[20]와 李丞宰 외[21]의 형태로 공간되기도 하였다.[22]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진본 화엄경 권20의 구결점의 해독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독되지 못하거나 해독이 되었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한 구결점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공독 판독 및 해독 결과물인 이승재 외[23]의 경우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내용을 나누어 강독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어서 해독안이 권차나 작성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24]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승재 외[25]의 판독안 및 해독안을 재검토하여, 미해독이거나 판독 및 해독의 재고를 요하는 구결점들의 해독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26] 이 과정에서 동일한 화엄경 계통의 자료인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 대한 연구 성과인 안대현[27]과 文玄洙[28] 등에서 이루어진 구결점 해독 방안을 응용하는 것은 물론,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활용하고자 한다.[29]

---

17) 같은 글.
18) 김성주, 앞의 글, 2007.
19) 같은 글.
20)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21)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b.
22)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앞의 책, 2009b.
23)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24) 같은 책.
25) 같은 책.
26) 같은 책.
27) 안대현,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20집, 口訣學會, 2008a, 259-286면;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2)—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 제51집, 國語學會, 2008b, 195-227면.
28) 文玄洙,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29) 안대현, 앞의 글, 2008a; 앞의 글, 2008b; 文玄洙, 앞의 글.

3. 진본 화엄경 미해독 구결점의 해독

아래의 절에서는 크게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하는 구결점, 연결어미 ‘-며’와 관련되는 구결점, 조사와 어미에 쓰인 ‘-과’와 관련된 구결점, 부정문과 관련된 구결점을 위주로 미해독이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구결점들의 해독을 시도할 것이다.

1)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한 구결점

기존의 판독안에는 12(·)와 33(·)이 모두 ‘ㄱ’으로 해독되고, 44(·)와 14(·)가 모두 ‘ㅁ’로 해독되었다.[30] 그런데 12(·), 14(·)는 각각 33(·), 44(·)와 그 쓰임에서 차이를 보인다.



(Aㄱ) (Aㄴ) (Bㄱ)

(A) ㄱ. 〈진본화엄20〉[31]

A:菩薩摩訶薩[33(·)]安住此迴向[53(:),12(|·),53(··),33(·)]

B:菩薩摩訶薩[ㄱ]安住此迴向[ㅋㅗ,ㅊㄱ,ㅣㅗ,ㄱ]

C:菩薩摩訶薩ㄱ 此 迴向ㅋㅗ 安住(ㅇ)ㅊㄱㅣㅗㄱ

D:보살마하살은 이 회향에 안주하면

ㄴ. 〈진본화엄20〉[32]

A:迴向一切无所顯現[14(·),33(·),53(·.)]

B:迴向一切无所顯現[ㅣㅁ,ㄱ,ㅋㅗ]

C:一切 顯現ㅣㅁ 所 无ㄱㅋㅗ 迴向(ㅇㅎ)

D:일체 顯現할 바 없는 것에 회향하며,

30) 朴鎭浩, 앞의 글, 2006;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31) 晉本『華嚴經』卷20, 10장 18-19행.
32) 晉本『華嚴經』卷20, 6장 8행.

(B) ㄱ. 〈진본화엄20〉[33]

A:一切菩薩[44(·)]行[53(:)]等[55(/)]所種[12(·),25(·)]善根悉能[=24(·)]迴向[45(ㄱ)]故

B:一切菩薩[ㆀ]行[ㄱㅓㅅ]等[ㅏㅋㅌㅣ]所種[ㅅㄱ,ㅌ]善根悉能[ㅊ]迴向[ㆀㅅㅁ]故

C:一切 菩薩ㆀ 行ㄱㅓㅅ 等(ㅅ)ㅏㅋㅌㅣ 種ㅅㄱ 所ㅌ 善根 悉 能ㅊ 迴向(ㅅ)ㆀㅅㅁ 故(ㅅ)

D:일체 보살의 行에 똑같이 한다. 심은 바의 善根이 다 능히 회향하기 때문이다.

ㄴ. 〈화엄14〉[34]

柔輭食ㄹ 得 當 願 衆生 大悲ㅁ 熏ㅅㄱ 所ㅂㅁ 心意 柔輭ㅅㅌㅛ(부드러운 음식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大悲로 스미게 한 바라서 마음이 柔輭하소서 (할 것이며))

33(·)은 (Aㄱ)처럼 보조사 '-ㄱ'으로 해독되거나 (Aㄴ)처럼 동명사형어미 '-ㄱ'으로 해독되는 예가 있는 반면에, 12(·)는 보조사로 해독되는 경우가 없고 용언에만 쓰인다. 특히 (Bㄱ)처럼 '所+타동사' 구문에는 33(·)이 현토되는 일이 없고 12(·)이 현토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토석독구결에서는 (Bㄴ)처럼 선어말어미 '-오-'가 필수적으로 현토되므로 12(·)에는 '-오-'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35] 그리고 12(·)는 어간에 직접 후행하는 예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ㅅ-'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하면 12(·)는 'ㅅㄱ'으로 해독할 수 있다.



(Cㄱ)



(Cㄴ)



(Cㄷ)



(Dㄱ)

33) 晉本『華嚴經』卷20, 10장 14행.

34)『華嚴經』卷14, 7장 16행.

35) '所+타동사' 구문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현토되는 점토석독구결과 자토석독구결의 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안대현, 앞의 글, 2008a. 이에 더해 '所+타동사' 구문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현토되는 중세국어의 예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석주연, 「중세 국어 관형사형의 '-오-'와 古代 漢語 '所'와의 상관성 연구—유형론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제20호, 국어사학회, 2015, 371-395면.

(C) ㄱ. 〈진본화엄20〉[36]

A:如无着[44(·),25(··)]如善根亦尒迴向究竟无所着[25(·.)]際[53(:)]

B:如无着[ㄕ,ㅌㅌ]如善根亦尒迴向究竟无所着[xㅌ]際[ㅋㅜ]

C:着ㄕ 无ㅌㅌ 如(ㄷㅅㄕ) 如(ㅊ) 善根 亦(ㄲ) 尒(ㅅㅋ)

D:집착할 없는 眞如와 같이 善根 역시 그러하여,

ㄴ. 〈진본화엄20〉[37]

A:生如來[44(·)]家[53(:),52(\)]脩菩薩[44(·)]行[41(·),=22(·)]

B:生如來[ㄕ]家[ㅋㅜ,ㅅㅋ]脩菩薩[ㄕ]行[ㄷ,ㅎ]

C:如來ㄕ 家ㅋㅜ 生ㅅㅋ 菩薩ㄕ 行ㄷ 脩ㅎ

D:여래의 집안에 태어나서 보살의 행을 닦고

ㄷ. 〈진본화엄20〉[38]

A:如一切[44(·),=53(·)]平等[25(ㅗ)]如善根亦尒

B:如一切[ㄕ,ㅜ]平等[ㅅㅌㅌ]如善根亦尒

C:一切ㄕㅜ 平等ㅅㅌㅌ 如(ㄷㅅㄕ) 如(ㅊ) 善根 亦(ㄲ) 尒(ㅅㅋ)

D:일체에 평등한 眞如와 같이 善根 역시 그러하여

(D) ㄱ. 〈진본화엄20〉[39]

A:而[45(·)]无所畏[14(·),42(·)]大師子吼[22(·)]

B:而[ㅉ]无所畏[ㄴㄕ,ㅋ]大師子吼[ㅎ]

C:而ㅉ 畏ㄴㄕ 所 无ㅋ 大師子吼(ㅅ)ㅎ

D:두려워할 바 없어 큰 사자후를 하고

ㄴ. 〈화엄14〉[40]

信ㄱ {於}境界ㅋㅜ 著ㄴㄕ 所 無ㅐㅅㅜㅊㅎ 諸ㄱ 難ㄷ 遠離ㅅㅁㅅ 無難ㄷ 得ㅐㅜㅊㅎ(信은 境界에 執着할 바 없이 할 것이며 모든 어려움을 멀리 여의고서 無難을 얻게 할 것이며)

44(·)은 (Cㄱ)처럼 동명사어미 '-ㄕ'으로 해독되거나 (Cㄴ)처럼 속격조사 '-ㄕ'으로 해독되는 예가 있으며, (Cㄷ)처럼 '一切'에 후행하는 '-ㄕ'로도 해독된다. 반면에, 14(·)는 속격조사나 피부정 용언, '一切'에 현토

36) 晉本『華嚴經』卷20, 6장 14-15행.
37) 晉本『華嚴經』卷20, 16장 18행.
38) 晉本『華嚴經』卷20, 6장 2-3행.
39) 晉本『華嚴經』卷20, 10장 19-20행.
40)『華嚴經』卷14, 10장 4행.

되는 일이 없고 항상 용언에만 쓰인다. 특히 '所+타동사' 구문에서는 44(·)가 현토되는 일이 없고 항상 14(·)만이 현토되므로, 14(·)에는 '-오-'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4(·)는 어간에 직접 후행하는 예는 없으므로 'ㅇ-'를 포함하는 'ㅣㅇ'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E) 攝



(E) 相

(E) 〈진본화엄20〉[41]
A:法身[45(·)]所攝[12(|),25(·)]業[33(·)]隨順衆生相[53(:),25(·),12(··),35(/)]
B:法身[ㅉ]所攝[ㅎㅋㄱ,ㅌ]業[ㄱ]隨順衆生相[ㅋㅏ,ㅌ,ㅎㄱ,ㅐ]
C:法身ㅉ 攝(ㅇ)ㅎㅋㄱ 所ㅌ 業ㄱ 衆生相ㅋㅏ 隨順ㅌ(ㅇ)ㅎㄱㅐ
D:法身으로 포섭하신 바의 業은 衆生相에 隨順하시니

한편 12(··)와 12(|)는 기존에 모두 'ㅎㄱ'으로 해독되었으나,[42] (E)처럼 12(|)은 12(··)와 달리 '所+타동사' 구문에 쓰였으므로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는 'ㅎㄱ', 12(|)는 'ㅎㅋㄱ'으로 해독할 수 있다.

요컨대 12(·)는 'ㅣㄱ', 14(·)는 'ㅣㅇ', 12(··)는 'ㅎㄱ', 12(|)는 'ㅎㅋㄱ'으로 해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독 결과는 주본 화엄경의 12(·), 14(·), 12(··), 12(|)의 해독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43] 향후 진본 화엄경에서도 주본 화엄경과 마찬가지로 12위치의 구결점과 14위치의 구결점이 형태의 대칭성에 따른 해독의 체계성을 보인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 위치에 현토된 다른 구결점의 해독은 큰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41) 晉本『華嚴經』卷20, 12장 1행.
42) 朴鎭浩, 앞의 글, 2006;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43) 안대현, 앞의 글, 2008a; 文玄洙, 앞의 글, 2017.

2) 연결어미 '-며'와 관련된 구결점

51(·)과 52(·) 모두 연결어미 '-ㅅ'로 해독되었다.[44]



(Fㄱ) (Fㄴ) (Gㄱ) (Gㄴ)

(F) ㄱ. 〈진본화엄20〉[45]

A:一切菩薩[44(·)]諸善根海[53(:),52(\)]盡其原底[41(·),42(·),51(·)]

B:一切菩薩[ㄕ]諸善根海[ㅋㅜ,ㅅㅋ]盡其原底[ㄷ,ㅋ,ㅅ]

C:一切 菩薩ㄕ 諸 善根海ㅋㅜㅅㅋ 其 原底ㄷ 盡ㅋㅅ

D:일체 보살의 모든 善根海에서 그 原底를 다하며

ㄴ. 〈진본화엄20〉[46]

A:如過去[35(·.)]非同[35(·),51(·)]

B:如過去[ㄱ]非同[ㅊ,ㅅ]

C:過去ㄱ 同 非ㅊㅅ

D:과거도 같은 것 아니며

(G) ㄱ. 〈진본화엄20〉[47]

A:得離癡智[41(·),22(·)]悉能[24(·)]分別一切[44(·)]世界[22(·),52(·)]

B:得離癡智[ㄷ,ㅎ]悉能[ㅊ]分別一切[ㄕ]世界[ㅎ,ㅅㅅ]

C:離癡智ㄷ 得ㅎ 悉(ㅋ) 能ㅊ 一切ㄕ 世界(ㄷ) 分別(ㅅ)ㅎㅅㅅ

D:離癡智를 얻고 모두 능히 일체 세계를 분별하고 하며,

ㄴ. 〈진본화엄20〉[48]

A:充滿十方[53(:),22(.·),52(·)]

B:充滿十方[ㅋㅜ,ㅋ,ㅅㅅ]

C:十方ㅋㅜ 充滿ㅋㅅㅅ

---

44) 朴鎭浩, 앞의 글, 2006;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45) 晉本『華嚴經』卷20, 4장 15행.
46) 晉本『華嚴經』卷20, 10장 2행.
47) 晉本『華嚴經』卷20, 2장 5-6행.
48) 晉本『華嚴經』卷20, 12장 26행-13장 1행.

D:十方에 充滿히 하며

(H) ㄱ. 〈화소35〉[49]

分別ㄹ 起ㅁ 不ㅅㅎ 貪ㅁ 不ㅅㅎ 味ㅁ 不ㅅㅎㅅㅎ 亦ㅅㄱ 求取ㅁ 不ㅅㅎ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며, 탐내지 않고 맛들이지 않고 하며, 또한 구하여 가지지 않으며,

ㄴ. 〈화엄14〉[50]

{是}ㅐ 如ㅊㅅㄱ 一切ㅁㅜ 皆ㅌ 自在ㅋㅅㅏㅎㄱㅅㄱ

이와 같은 一切에 다 自在히 하는 것은

51(·)은 (F)처럼 어간에 직접 후행하는 예가 있는 데 비해, 52(·)는 어간이 선행하는 예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52(·)는 (Gㄱ)처럼 나열의 연결어미 '-ㅎ'에 후행하거나 (Gㄴ)처럼 부사파생어미 '-ㅋ'에 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토석독구결에서는 (H)처럼 'ㅅ-'가 반드시 후행하므로 52(·)는 51(·)과 달리 'ㅅ-'를 포함하는 'ㅅㅎ'로 해독할 수 있다. 이처럼 51(·)이 'ㅎ'로 해독되고 52(·)가 'ㅅㅎ'로 해독되는 것은 주본 화엄경의 51(·), 52(·)과 동일하다.[51]

3) 조사와 어미에 쓰인 '-과'와 관련된 구결점

54(i)는 朴鎭浩[52]에서 14(.·) 또는 14(·)와 함께 쓰여 여러 개의 절을 연결한 뒤 'ㅅㄹㅅ-' 또는 'ㄹㅅ-'가 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ㄱ'으로 끝나는 잠정적으로 구결점으로 해독하였다.[53]


(ㅣㄱ) 世


(ㅣㄱ) 住


(ㅣㄴ) 界


(ㅣㄴ) 際

49) 『華嚴經疏』 卷35, 13장 3-4행.
50) 『華嚴經』 卷14, 15장 7행.
51) 文玄洙, 앞의 글, 2017.
52) 朴鎭浩, 앞의 글, 2006.
53) 같은 글.

(I) ㄱ. 〈진본화엄20〉[54]

A:不壞佛相[41(·),44(·),22(·)]等[42(·)]觀三世[41(·),22(·),14(·),54(i)]了衆生[52(ㅜ)]空[41(i),22(·)]无所依住[14(·),33(·),41(··),22(·),14(·),54(i),41(·),52(·)]

B:不壞佛相[ㄷ,ㄕ,ㅎ]等[ㅋ]觀三世[ㄷ,ㅎ,ㄱㄕ,ㅅ]了衆生[ㅋ]空[xㅅㄷ,ㅎ]无所依住[ㄱㄕ,ㄱ,ㅅㄷ,ㅎ,ㄱㄕ,ㅅ,ㄷ,ㅇㅎ]

C:佛相ㄷ 壞ㄕ 不(ㅇ)ㅎ 等ㅋ 三世ㄷ 觀(ㅇ)ㅎㄱㄕㅅ 衆生ㅋ 空xㅅㄷ 了(ㅇ)ㅎ 依住ㄱㄕ 所 无ㄱㅅㄷ(ㅇ)ㅎㄱㄕㅅㄷㅇㅎ

D:佛相을 부수지 않고 평등하게 三世를 보고 하는 것과, 중생의 空함을 알고 依住할 바 없는 것을 하고 하는 것과를 하며

ㄴ. 〈진본화엄20〉[55]

A:決定[22(.·)]深[35(/)]解不二法界[41(·),22(·),14(·),54(i)]具足可樂離欲際等[12(:),=41(·),52(\)]一切諸法[53(:),54(\)]入眞實際[53(:),14(·),54(i),41(·),51(·)]

B:決定[ㅋ]深[ㅐ]解不二法界[ㄷ,ㅎ,ㄱㄕ,ㅅ]具足可樂離欲際等[ㅇㄱ,ㄷ,ㅇㅋ]一切諸法[ㅋㅜ,ㅋㅎ]入眞實際[ㅋㅜ,ㄱㄕ,ㅅ,ㄷ,ㅎ]

C:決定ㅋ 深ㅐ 不二法界ㄷ 解(ㅇ)ㅎㄱㄕㅅ 樂 可 離欲際 等ㅇㄱㄷ 具足ㅇㅋ 一切 諸法ㅋㅜ(ㅇ)ㅋㅎ 眞實際ㅋㅜ 入ㄱㄕㅅㄷ(ㅇ)ㅎ

D:결정코 깊이 둘이 아닌 법계를 了解하고 하는 것과 즐길 만한 離欲際等을 具足하여 일체 모든 법에서 眞實際에 들어가는 것과를 하며

그러나 (Iㄱ)의 '住'에 현토된 구결점의 판독 순서를 [14(·),22(·),14(·),54(i),41(··),52(·),33(·),41(·)]로 본 박진호[56]와 달리 [14(·),33(·),41(··),22(·),14(·),54(i),41(·),52(·)]처럼 본다면, 54(i)는 'ㅅㄷㅇ-'가 아니라 'ㄷㅇ-'가 후행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볼 수 있다.[57]

(J) ㄱ. 〈화소35〉[58]

謂ㄱㄱㄱ 世間ㄱ 有邊ㅐㅣ 世間ㄱ 無邊ㅐㅣ 世間ㄱ 亦有邊 亦無邊ㅐㅣ 世間ㄱ 非有邊 非無邊ㅐㅣㄱㄕㅅ 世間ㄱ 有常ㅐㅣ 世間ㄱ 無常ㅐㅣ 世間

54) 晉本『華嚴經』卷20, 4장 20-21행.
55) 晉本『華嚴經』卷20, 4장 6-7행.
56) 朴鎭浩, 앞의 글, 2006.
57) 같은 글.
58)『華嚴經疏』卷35, 6장 5-16행.

ㄱ 亦有常 亦無常ㅐㅣ 世間ㄱ 非有常 非無常ㅐㅣ ㄱㄕㅅ
世間은 有常이다, 世間은 無常이다, 世間은 亦有常亦無常이다, 世間은 非有常非無常이다 하는 것과 이른바 세간은 有邊이다, 세간은 無邊이다, 세간은 亦有邊亦無邊이다, 세간은 非有邊非無邊이다 하는 것과

ㄴ. 〈유가20〉[59]
謂ㄱ 有餘依涅槃界ㅅ 及ㅌ 無餘依涅槃界ㅅㄷ 依止ㅇㄱㅐㅣ
즉 유여의열반계와 무여의열반계와를 의지한 것이다.

한편 자토석독구결에서는 (Jㄱ)처럼 나열구문에 'ㄱㄕㅅ'가 쓰인 예가 관찰되며, (Jㄴ)처럼 나열의 조사 '-ㅅ'에 격조사 '-ㄷ'이 현토되는 현상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54(i)에 'ㄱㄕ'로 해독되는 14(·)가 선행하고 'ㄷ'로 해독되는 41(·)이 후행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를 고려하면 54(i)는 'ㅅ'로 해독되는 점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0]



(Kㄱ)

59)『瑜伽師地論』卷20, 4장 20-21행.

60) 이 외에도 나열의 조사 '-ㅅ'로 해석할 수 있는 54(i)는 다음과 같다.
晉本『華嚴經』卷20, 4장 4행-7행.
A:於現在[11(·.)]佛[42(-)]所[=53(:)]得可愛樂巧妙方便[41(·),14(.·),54(i)]得可愛樂深妙方便[41(·),54(\)]无所鄣㝵[14(·),14(.·),54(i)]永[42(·)]離愚癡[41(·),34(·)]具足可樂平等離欲[41(·),22(·)]一切諸法[53(:)]斷諸鄣㝵[41(·),22(·)]決定[22(.·)]深[35(/)]解不二法界[41(·),22(·),14(·),54(i)]具足可樂離欲際等[12(:),=41(·),52(\)]一切諸法[53(:),54(\)]入眞實際[53(:),14(·),54(i),41(·),51(·)]
B:於現在[X]佛[ㅁ]所[ㅇㅜ]得可愛樂巧妙方便[ㄷ,ㅋㄕ,ㅅ]得可愛樂深妙方便[ㄷ,ㅇㅎ]无所鄣㝵[ㄱㄕ,ㅋㄕ,ㅅ]永[ㅇ]離愚癡[ㄷ,ㅁ]具足可樂平等離欲[ㄷ,ㅎ]一切諸法[ㅇㅜ]斷諸鄣㝵[ㄷ,ㅎ]決定[ㅋ]深[ㅐ]解不二法界[ㄷ,ㅎ,ㄱㄕ,ㅅ]具足可樂離欲際等[ㅇㄱ,ㄷ,ㅇㅇ]一切諸法[ㅇㅜ,ㅇㅎ]入眞實際[ㅇㅜ,ㄱㄕ,ㅅ,ㄷ,ㅎ]
C:{於}現在X 佛ㅁ 所ㅇㅜ 愛樂 可 巧妙 方便ㄷ 得ㅋㄕㅅ 愛樂 可 深妙 方便ㄷ 得ㅇㅎ 鄣㝵ㄱㄕ 所 无ㅋㄕㅅ 永ㅇ 愚癡ㄷ 離ㅁ 樂 可 平等 離欲ㄷ 具足(ㅇ)ㅎ 一切 諸 法ㅇㅜ 諸 鄣㝵ㄷ 斷(ㅇ)ㅎ 決定ㅋ 深ㅐ 不二法界ㄷ 解(ㅇ)ㅎㄱㄕㅅ 樂 可 離欲際 等ㅇㄱㄷ 具足ㅇㅇ 一切 諸 法ㅇㅜ(ㅇ)ㅇㅎ 眞實際ㅇㅜ 入ㄱㄕㅅㄷ(ㅇ)ㅎ
D: 현재하신 부처 처소에서 愛樂할 만한 巧妙한 方便을 얻는 것과 愛樂할 만한 深妙한 方便을 얻어서 鄣㝵될 바 없는 것과 영원히 愚癡를 여의고서 즐길 만한 平等한 離欲을 具足하고 일체 모든 법에서 모든 장애를 끊고 결정코 깊이 둘이 아닌 법계를 了解하고 하는 것과 즐길 만한 離欲際 等을 具足하여 일체 모든 법에서 眞實際에 들어가는 것과를 하며,

(K) ㄱ. 〈진본화엄20〉[61]

A:菩薩[33(·)]捨此身[41(·),=54(i),35(|·)]无死[25(·),55(\),14(\·)]虛妄想[12(\.)]

B:菩薩[ㄱ]捨此身[ㄷ,ㅅ,ㅛ]无死[ㅌ,ㅋㅌㅣ,xㅁ]虛妄想[xㄱ]

C:菩薩ㄱ 此 身ㄷ 捨(ㅇ)ㅅㅛ 死ㅌㅋㅌㅣxㅁ 虛妄想 无xㄱ

D:菩薩은 이 몸을 버리더라도 죽는다 하는 虛妄想이 없으니

ㄴ. 〈유가20〉[62]

謂ㄱ 佛世尊ㄱ 般涅槃ㅇㄴㅎㅌㅅ{雖}ㅛ 而ㄱ 俗正法ㅐ 猶ㅐ 住ㅇㅋㅎ 未滅ㅇㄹ 勝義正法ㅐ 未隱未斷ㅇㄹㅇㅁㅊㅣ

말하자면 불세존은 반열반하시더라도 세속의 정법이 여전히 머물러서 멸하지 않고, 승의의 정법이 가려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다.

54(i)를 'ㅅ'로 해독하는 것은 (Kㄱ)의 54(i)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54(i)는 35(|·)와 함께 쓰여 양보의 연결어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Kㄴ)처럼 'ㅅㅛ'가 현토되고 있다. 이처럼 54(i)와 35(|·)가 'ㅅㅛ'를 표기한 것이라면 54(i)는 'ㅅ', 35(|·)는 'ㅛ'로 해독되는 점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ㄱ) (Lㄷ) (Lㄹ)

(L) ㄱ. 〈진본화엄20〉[63]

A:如是[24(·)]不思議[44(·),53(\·),31(··),11(·.)]思議[35(|·)]不可盡[42(\),12(:),35(·),12(\.)]深[35(/)]入不思議[53(·.),52(\)]思[11(·)]非思[11(·),13(ㅗ)]寂滅[51(·.)]

B:如是[ㅊ]不思議[ㅁ,〈ㅅ〉,ㅅㅈ,xㅅ]思議[ㅛ]不可盡[ㅅ,ㅆㄱ,ㅊ,xㄱ]深[ㅐ]入不思議[ㅋㅏ,ㅆㅋ]思[ㅅ]非思[ㅅ,ㅅㅇ]寂滅[xㅇ]

61) 晉本『華嚴經』卷20, 12장 9행.
62)『瑜伽師地論』卷20, 3장 11-13행.
63) 晉本『華嚴經』卷20, 12장 2행.

C:是 如ᄒᆞᆫ 思議ㅣ 不〈ㅣ〉ㅣ ᄎᆞᆺx ᄒᆞ 思議ㅐ 盡ㅊ(ᄒᆞ)可ㅣㄱ 不ᄎᆞᆺxㄱ 深ㅐ 不思議ㅋㅏ 入ㅣㅎ 思ᄒᆞ 非思ᄒᆞㅣᄉᆞ 寂滅xᄉᆞ

D:이와 같이 思議하지 못할 것이라 思議(하더라)도 다할 수 없으니, 깊이 不思議에 들어서 思이니 非思이니 하는 것이 寂滅하며

ㄴ. 〈자비04〉[64]

而ㄱ 此 罪人ㄱ 初ㅌᄒᆞㅐ 改悔ㅣ 無ㄱㅅᄭ 今日ㅎㅏ 得ㅎᄉᆞ 出ㅊᄉᆞᄒᆞ 俄ㅌㅣㅌㅌ 頃ㅎㅏ 復ㄱ 還ᄒᆞᆫ 展轉輪迴ㅣㅎᄉᆞ 痛苦ㅐㄱㅅㄷ 知ㅣ 不ㅣㅣㅁㄱ

그러나 이 죄인은 애초에도 회개함이 없는 까닭으로, 오늘에 능히 나가더라도 잠깐 사이에 다시 도로 거듭 윤회하여서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니

ㄷ. 〈주본화엄57〉[65]

A:未曾[23(:),33(·)]暫[33(/)]捨禪定[11(·)]解脫[11(·)]及[25(·)]諸[33(·)]三昧[11(·),41(:),14(:),41(··)]是爲第四莊嚴道

B:未曾[ㅅ,ㄱ]暫[ㅐ]捨禪定[ᄒᆞ]解脫[ᄒᆞ]及[ㅌ]諸[ㄱ]三昧[ᄒᆞ,ㅣᄉᆞㄷ,ㅣㅣ,ㅅㄷ]是爲第四莊嚴道

C:曾ㅅㄱ 暫ㅐ 禪定ᄒᆞ 解脫ᄒᆞ 及ㅌ 諸ㄱ 三昧ᄒᆞㅣᄉᆞㄷ 捨ㅣㅣ 未ㅣㅣ ㅅㄷ 是 {爲}第四 莊嚴道

D:일찍이는 조금도 禪定이니 解脫이니 및 모든 三昧니 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것을 第四 莊嚴道라 하며

ㄹ. 〈진본화엄20〉[66]

A:廻向衆生[52(ㅜ)]解了諸法[41(·),35(|·)]

B:廻向衆生[ㅋ]解了諸法[ㄷ,ㅐ]

C:衆生ㅋ 諸法ㄷ 解了(ㅣᄉᆞㅏ)ㅐ 廻向(ㅣᄉᆞ)

D:衆生이 諸法을 解了하는 데에도 廻向하며

35(|·)는 (Lㄱ)처럼 보조사로서 쓰여 현대국어 보조사 '-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토석독구결에서도 (Lㄴ)처럼 'ㅐ'가 '-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본 화엄경에서도 (Lㄷ)처럼 'ㅐ'가 보조사 '-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된다. 아울러 (Lㄹ)의 35(|·)도 생략된 토가 있기는 하지만 보조사로 쓰인 'ㅐ'로서 해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35(|·)는 'ㅐ'로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

64) 『慈悲道場懺法』 卷4, 21장 12-14행.
65) 周本 『華嚴經』 卷57, 8장 8-9행.
66) 晉本 『華嚴經』 卷20, 5장 11-12행.



(Mㄱ)



(Mㄴ)

(M) ㄱ. 〈진본화엄20〉[67]

A:如爲己[52(ㅜ)]身[41(·),54(\·),21(·)]爲衆生[23(|)]迴向亦復[35(·.)]如是[52(·-)]

B:如爲己[ㅋ]身[ㄷ,邑ㅅ,X]爲衆生[ㅋㅎ]迴向亦復[ㄲ]如是[ㅋㅅ]

C:己ㅋ 身ㄷ 爲(ㅅ)邑ㅅ 如X 衆生(ㅋ) {爲}ㅋㅎ 迴向 亦 復ㄲ 是 如(ㅊㅅ)ㅋㅅ

D:자기의 몸을 위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중생을 위하여 회향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ㄴ. 〈진본화엄20〉[68]

A:爲衆生[41(·),54(\·),45(:)]故[24(·)]而[45(·)]不放逸[44(·),52(\)]善能[22(.·)]脩習一切善根[41(·),13(··)]

B:爲衆生[ㄷ,邑ㅅ,xㅅㅡ]故[ㅊ]而[ㅡ]不放逸[ㅁ,ㅅㅋ]善能[ㅎ]脩習一切善根[ㄷ,ㅣㅁㅿ]

C:衆生ㄷ 爲(ㅅ)邑ㅅ(ㅅ)xㅡ 故ㅊ 而ㅡ 放逸ㅁ 不ㅅㅋ 善能ㅎ 一切 善根ㄷ 脩習ㅣㅁㅿ

D: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까닭에 放逸하지 않아서 善能히 일체 선근을 脩習하되

한편 54(\·)는 모두 (M)과 같이 '爲NP' 구문에 쓰였는데, NP에는 목적격 조사 '-ㄷ'이 현토되어 'NP를 위하-'로 해석된다.

(N) ㄱ. 〈유가20〉[69]

他ㄷ 引ㅅㅋ {於}己ㅋㄷ 信ㅅ{令}ㅐ{爲}ㅅㅅㅁ 不冬ㅅㅎ 利養ㅗ 恭敬ㅗ 稱譽ㅗㅣㅁㄷ 爲ㅅ邑ㅅㅅㅁ 不冬ㅅㅎㅅㅁㅁ矢ㅣ(남을 이끌어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양(利養)이니 공경이니 칭찬[稱譽]이니 하는 것을 위하고자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67) 晉本『華嚴經』卷20, 2장 14행.
68) 晉本『華嚴經』卷20, 3장 9-10행.
69)『瑜伽師地論』卷20, 4장 18-19행.

ㄴ. 〈유가20〉[70]

若 說法師ㅣ 此 義ㄷ 爲ㅅ 邑ㅅㅅㅣㅏㅅㅡ 故ㅣ 正法ㄷ 宣說ㅅㅏㄱㄷ(만약 설법사가 이러한 의미를 위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정법을 펼쳐 말한다면(/펼쳐 말하는 것을),)

ㄷ. 〈구인상〉[71]

大王ㅜ {是}ㅣ 故ㅡ 佛佛ㅣ {於}世ㅗ 出現ㅅㄷㅜ 衆生ㄷ 爲ㅅㅅㄷㅏㅅㅡ 故ㅣ 說ㅋㅎ 三界ㅈ 六道ㅈㅣㅇㅎㅌ 名字ㄷ 作ㅅㅂㄱㄱㄷ(大王이시여, 이런 까닭으로 부처들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을 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말하여서 三界니 六道니 하는 名字를 지으신 것을,)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이러환 환경에서 (N)처럼 '邑ㅅ'가 쓰이는데,[72] 이를 고려하면 54(\·)는 '邑ㅅ'와 대응되는 구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Oㄱ)



(Oㄴ)

(O) ㄱ. 〈진본화엄20〉[73]

A:欲令具滿无閡[25(·)]身[41(·),54(\)]脩菩薩[44(·)]行[41(·),35(/),35(\.),54(/·),51(·.)]

B:欲令具滿无閡[ㅌ]身[ㄷ,ㅋㅎ]脩菩薩[ㅏ]行[ㄷ,ㅣ,(ㅅ)ㅣ,xㅅ,xㅎ]

C:无閡ㅌ 身ㄷ 具滿(ㅅ)ㅋㅎ 菩薩ㅏ 行ㄷ 脩ㅣ 令ㅣ{欲}xㅅxㅎ

D:无閡의 몸을 具滿하여서 菩薩의 行을 닦게 하고자 하며

ㄴ. 〈진본화엄20〉[74]

A:欲令口業[41(·)]淸淨无閼[=35(\.),54(\)]脩菩薩[44(·)]行[41(·),35(/),35(\.),54(/·),51(·.)]

---

70) 『瑜伽師地論』 卷20, 5장 21행.

71) 『舊譯仁王經』 卷上, 14장 4-6행.

72) 문현수, 「『瑜伽師地論』 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 『口訣硏究』 제33집, 口訣學會, 2014, 249-283면.

73) 晉本 『華嚴經』 卷20, 1장 19-20행.

74) 晉本 『華嚴經』 卷20, 1장 20-21행.

B:欲令口業[ㄱ]淸淨无閡[(ㅅ)ㅐ,ㅋㅎ]脩菩薩[ㄲ]行[ㄱ,ㅐ,(ㅅ)ㅐ,x ㅅ,xㅇ]
C:口業ㄱ 淸淨无閡ㅅㅐㅋㅎ 菩薩ㄲ 行ㄱ 脩ㅐ 令ㅐ {欲)x ㅅxㅇ
D:口業을 淸淨无閡하게 하여서 菩薩의 行을 닦게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54(/·)는 모두 (O)처럼 '欲'에 현토되어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연결어미 '-ㅅ'가 현토된다. 따라서 54(/·)를 'ㅅ'로 해독되는 구결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미 'ㅅ'와 대응되는 54(i)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xㅅ'로 해독해 두기로 한다.[75]

요컨대 54(i)는 'ㅅ', 54(\·)는 'ㅁㅅ', 54(/·)는 'xㅅ', 35(|·)는 'ㅐ'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본 화엄경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 현토된 54(ㄴ)와 54(|·)이 'xㅅ'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는 점과[76] 진본 화엄경에서 'ㄱ'로 해독되는 35(·.)와 'ㅐ'로 해독되는 35(|·)가 동일 위치라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이다.

4) 부정문과 관련된 구결점

기존의 판독안에서 45(|·)은 미해독으로 남은 구결점이다. 그런데 45(|·)은 모두 부정문에 쓰인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해독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Pㄱ)


(Pㄴ) 첫 번째 修


(Pㄴ) 두 번째 修

75)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독 및 해독안에서는 1장 20행의 '行'자에 32(·)가 현토된 것으로 보고 이를 연결어미 '-ㅅ'로 해독한 바 있으나, 32(·)가 현토되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32(·)는 'ㅁㄱ'으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의미 있는 구결점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李丞宰 외, 앞의 책, 2009a.

76) 文玄洙, 앞의 글, 2017.

(P) ㄱ. 〈진본화엄20〉[77]

A:心[33(·)]不在內外[53(:),45(|·),35(·),51(·)]

B:心[ㄱ]不在內外[ㅋㅜ,ㅌ,矢,ㅎ]

C:心ㄱ 內外ㅋㅜ 在(ㅅ)ㅌ 不矢ㅎ

D:마음은 內外에 있는 것이 아니며

ㄴ. 〈진본화엄20〉[78]

A:如非可脩[24(\),45(|·),35(·),51(·)]非不可脩[24(\),12(:),45(|·),25(··)]如善根亦尒

B:如非可脩[ㅋㅎ,ㅌ,矢,ㅎ]非不可脩[ㅋㅎ,ㅅㄱ,ㅌ,ㅌㅌ]如善根亦尒

C:脩ㅋㅎ 可(ㅌㅅ)ㅌ 非矢ㅎ 脩ㅋㅎ 可(ㅌ)ㅅㄱㅌ 不(矢) 非(矢)ㅌㅌ 如(ㄹㅅㄕ) 如(ㅊ) 善根 亦(ㄲ) 尒(ㅅㅋ)

D:닦을 수 있는 것 아니며 닦을 수 없는 것 아닌 眞如와 같이 善根도 그러하여

(Q) ㄱ. 〈화소35〉[79]

謂ㄴㄱ 所ㄱ 多聞 善巧 盡ㅊㅎ可ㅌㅅㅌ 不矢ㄱㅅㅉ{故}ㅐㅎ

(즉 많이 듣는 공교함이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ㄴ. 〈화소35〉[80]

然ㅋㅅㄱ {此}ㅐ 法ㄱ{者} 處所 有ㅌㄱㅌ 非矢ㅎ 處所 無ㅌㄱㅌ 非矢ㅎ

(그러나 이 법은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며, 처소(가) 없는 것이 아니며,)

45(|·)는 (P)처럼 피부정 용언에 현토되는 구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부정사가 모두 '不矢'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이 경우에 '-ㄱ', '-ㅌ', '-ㅁㄱ'이 피부정 용언에 현토되는데, 'ㄱ'은 33(·)에 대당되므로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 (Pㄴ)의 45(|·)이 'ㅅㄱ'으로 해독되는 12(:)에 후행한다는 점과 자토석독구결에서 '-ㄱ'에 후행하는 것은 (Qㄴ)처럼 '-ㅌ'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45(|·)는 'ㅁㄱ'이 아니라 'ㅌ'로 해독되는 구결점임을 알 수 있다.

77) 晉本『華嚴經』卷20, 12장 5행.
78) 晉本『華嚴經』卷20, 9장 14-15행.
79)『華嚴經疏』卷35, 19장 14행.
80)『華嚴經疏』卷35, 13장 20행-14장 1행.


(Rㄱ)


(Rㄴ)


(Rㄷ)

(R) ㄱ. 〈진본화엄20〉[81]

A:不違諸法[25(·)]種種[25(·)]異[12(:)]相[=53(:),32(·),33(·),35(/),55(\),52(\)]

B:不違諸法[ㅌ]種種[ㅌ]異[ㅅㄱ]相[ㅋㅏ,ㅁㄱ,ㄱ,ㅐ,ㅋㅔㅣ,ㅅㅋ]

C:諸法ㅌ 種種ㅌ 異ㅅㄱ 相ㅋㅏ 違(ㅅ)ㅁㄱ 不(矣)ㄱㅐㅋㅔㅣㅅㅋ

D:모든 法의 갖가지 다른 相에 대해 어긋난 것이 아닌 것이다 하여

ㄴ. 〈진본화엄20〉[82]

A:如不違一切法[53(:),32(·),35(·),25(··)]如善根亦尒

B:如不違一切法[ㅋㅏ,ㅁㄱ,矣,ㅂㅌ]如善根亦尒

C:一切法ㅋㅏ 違(ㅅ)ㅁㄱ 不矣ㅂㅌ 如(乙ㅅㄲ) 如(ㅊ) 善根 亦(ㄲ) 尒(ㅅㅋ)

D:일체법에 대해 어긋난 것이 아닌 眞如와 같이 善根 역시 그러하여,

ㄷ. 〈진본화엄20〉[83]

A:而[45(·)]不窮盡[32(·),35(./),52(·-)]悉[42(·)]除一切衆生[52(┬)]疑惑[41(·),51(·)]

B:而[ᄭ]不窮盡[ㅁㄱ,矣ㅐ,ㅋㅅ]悉[ㅋ]除一切衆生[ㅋ]疑惑[乙,ㅎ]

C:而ᄭ 窮盡(ㅅ)ㅁㄱ 不矣ㅐㅋㅅ 悉ㅋ 一切 衆生ㅋ 疑惑乙 除ㅎ

D:窮盡한 것이 아니어서 다 일체 중생의 疑惑을 덜며

(S) ㄱ. 〈화엄14〉[84]

若 如來ㄲ 體ㅐ 常住ㅅㅀㅎㄱㅅㄴ 見ㅂㅌㄲㅅㄱ 則 能ㅊ 法ㅋ 永ㅿ 滅ㅅㅁㄱ 不矣ㅂㄱㅅㄴ 知ㅂㅈㅎ(만약 如來의 몸이 常住하시는 것을 보면 곧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것이며)

ㄴ. 〈화엄14〉[85]

若 能 法ㅋ 永ㅿ 滅ㅅㅁㄱ 不矣ㅂㄱㅅㄴ 知ㅂㄲㅅㄱ 則 得ㅋㅠ 辯才ㅐ 障礙ㅅㄲ 無ㅂㅈㅎ(만약 能히 法이 영원히 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

81) 晉本『華嚴經』卷20, 5장 1-2행.
82) 晉本『華嚴經』卷20, 6장 24-25행.
83) 晉本『華嚴經』卷20, 11장 4-5행.
84)『華嚴經』卷14, 11장 15행.
85)『華嚴經』卷14, 11장 16행.

곧 능히 辯才가 막힘 없을 것이며)

한편 32(·)도 45(|·)와 마찬가지로 피부정 용언에 현토되며 부정사로 '不矢'가 쓰인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쓰이는 자토 '-ㄱ', '-ㅌ', '-ㅁㄱ' 중에 '-ㄱ'와 '-ㅌ'는 각각 33(·)과 45(|·)에 대당되었으므로, 32(·)는 그 나머지인 '-ㅁㄱ'으로 해독되는 구결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Tㄱ)



(Tㄴ)

(T) ㄱ. 〈진본화엄20〉[86]

A:而[45(·)]不窮盡[32(·),35(./),52(·-)]悉[42(·)]除一切衆生[52(ㅜ)]疑惑[41(·),51(·)]

B:而[ᄲ]不窮盡[ㅁㄱ,矢ㅐ,ㅋㅅ]悉[ㅋ]除一切衆生[ㅋ]疑惑[ㄷ,ㅎ]

C:而ᄲ 窮盡(ㅅ)ㅁㄱ 不矢ㅐㅋㅅ 悉ㅋ 一切 衆生ㅋ 疑惑ㄷ 除ㅎ

D:窮盡한 것이 아니어서 다 일체 중생의 疑惑을 덜며

ㄴ. 〈진본화엄20〉[87]

A:具足善根[41(·),13(··)]不可窮盡[42(\),35(./)]一切功德[41(·)]皆悉[42(·)]滿足[22(·)]亦[33(·)]不分別種種[25(·)]善根[51(.·)]

B:具足善根[ㄷ,ㅣㄕㅁ]不可窮盡[ㅊ,矢ㅐ]一切功德[ㄷ]皆悉[ㅋ]滿足[ㅎ]亦[ㄱ]不分別種種[ㅌ]善根[xㅎ]

C:善根ㄷ 具足ㅣㄕㅁ 窮盡ㅊ(ㅎ)可(ㅌㅅㄱ) 不矢ㅐ 一切 功德ㄷ 皆 悉ㅋ 滿足(ㅅ)ㅎ 亦(ㅅ)ㄱ 種種ㅌ 善根(ㄷ) 分別(ㄕ) 不(ㅅㅎ)xㅎ

D:선근을 具足하되 다할 수 없으니, 일체 공덕을 모두 다 만족하고 또한 갖가지 선근을 분별하지 않고 하며

한편 부정문에 쓰이는 구결점으로 35(./)도 있다. 이 구결점은 앞서 검토

86) 晉本『華嚴經』卷20, 11장 4-5행.
87) 晉本『華嚴經』卷20, 3장 10-11행.

한 45(|·), 32(·)와 달리 피부정 용언에 현토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에 현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Tㄱ)의 35(./)는 피부정 용언에 현토된 32(·)[ㅁㄱ]과 연결어미로 쓰인 52(·-)[ㅋㅅ] 사이에 위치하여 이 구결점이 '不'에 현토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피부정 용언에 32(·)[ㅁㄱ]이 쓰였으므로 이때의 부정사로는 '不矣'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5(./)는 (Tㄴ)처럼 연결어미로서 기능하는 예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ᄒᆞ可ᄒᆞᄉᆞㄱ不矣-'로 현토되는 '不可' 구문이므로 부정사는 '不矣'임을 알 수 있다.

(U) ㄱ. 〈화엄14〉[88]

而ㄱ 彼 微塵ㄱ 亦ᄉᆞㄱ 增ᄉᆞᄆᆞㄱ 不矣ㄱ乙 {於}一ㄱᄒᆞ十 普ㅂ 難思ᄒᆞ 刹乙 現ᄒᆞᄆᆞᄇᆞᄋᆞ(그러나 저 微塵은 또한 더하는 것이 아니거늘 하나에 널리 생각하기 어려운 刹土를 나타내며)

ㄴ. 〈화엄14〉[89]

是ᄉᆞᄒᆞᄉᆞㄱ 時十 菩薩ㄱ 工匠ㅂᄀᆞ{爲}ᄉᆞᄂᆞᄋᆞᄋᆞ 之ᄅᆞ {爲}ᄋᆞᄒᆞ 種種ᄒᆞ 業乙 示現ᄂᆞᄀᆞᄆᆞ 衆生乙 逼惱ᄂᆞᄉᆞᄒᆞ 物ᄒᆞ乙 作ᄉᆞᄂᆞᄉᆞㄱ 不矣ㅂ 但ㅅ 世間乙 利益ᄂᆞᄉᆞᄒᆞ 事乙 說ᄉᆞᄂᆞᄋᆞ(이때에 菩薩은 工匠이 되며 그를 위해 갖가지 業을 보이되 衆生을 逼惱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 오직 世間을 利益되게 하는 일을 일러)

그런데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U)처럼 '不'에 '不矣ㅂ'가 현토된다. (Uㄱ)은 (Tㄱ)의 35(./)처럼 피부정 용언에 'ㅁㄱ'이 현토된 '不矣(ㅂ)'의 예이고, (Uㄴ)은 연결어미의 용법을 보이는 '不矣ㅂ'의 예이다. 이를 고려하면 35(./)는 '矣ㅂ'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Vㄱ)



(Vㄴ)

88) 『華嚴經』 卷14, 15장 9행.
89) 『華嚴經』 卷14, 19장 13-14행.

(V) ㄱ. 〈진본화엄20〉[90]

A:迴向一切衆生[41(·)]一切魔[42-52(ㅜ)]業[45(·)]所不能動[35(·),14(·),35(./),35(\.),13(·\),53(·.)]

B:迴向一切衆生[ㄷ]一切魔[ㅋ]業[ㅉ]所不能動[矢,ノ ㄕ,矢ㅐ,(ㅅ)ㅐ,ㅋ ㅇ,ㅋ ㅏ]

C:一切 衆生ㄷ 一切 魔ㅋ 業ㅉ 動 不 能(ㅐ)矢ノ ㄕ {所}矢ㅐㅐㅋ ㅇㅋ ㅏ 迴向(ㅅㅎ)

D:一切 衆生으로 하여금 一切 魔의 業으로 능히 못 움직이는 바이게 하는 데에 회향하며,

ㄴ. 〈진본화엄20〉[91]

A:廻向一切衆生[41(·)]不可破壞[52(\),24(\),12(:),35(./),35(\.),=13(·\),53(·.)]

B:廻向一切衆生[ㄷ]不可破壞[ㅅㅎ,ㅋㅎ,ㅅㄱ,矢ㅐ,(ㅅ)ㅐ,ㅋ ㅇ,ㅋ ㅏ]

C:一切 衆生ㄷ 破壞ㅅㅎㅋㅎ 可(ㅌ)ㅅㄱ 不矢ㅐㅐㅋ ㅇㅋ ㅏ 廻向(ㅅㅎ)

D:一切 衆生으로 하여금 破壞함 직한 것이 아니게 하는 데에 廻向하며

한편 (Vㄱ)의 35(./)는 유일하게 부정사에 현토되지 않고 '所'에 현토된 예이다. 이 경우에는 동명사형어미 '-ㄕ'이 선행하고 사동의 '(ㅅ)ㅐ'가 후행하는데, '所'를 의존명사 'ㄷ'로 훈독한 것으로 보면 35(./)를 의존명사 'ㄷ'와 계사 '-이-'의 결합형인 '矢ㅐ'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92] 아울러 35(./)에 사동의 '(ㅅ)ㅐ'가 후행하는 것은 (Vㄱ)와 유사한 구문 구성을 보이는 (Vㄴ)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Wㄱ)



(Wㄴ)

90) 晉本『華嚴經』卷20, 7장 5-6행.

91) 晉本『華嚴經』卷20, 5장 24-25행.

92) '矢ㅐ'가 동명사어미 '-ㄕ'에 후행하여 의존명사 'ㄷ'와 계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한 예는 자토석독구결에서도 '聽聞ㅅㄕ矢ㅐㄱㄱ', '{有}ㅐㄕ矢ㅐㄱㅡ'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瑜伽師地論』卷20, 4장 18행; 14장 4행.

(W) ㄱ. 〈진본화엄20〉[93]

A:成就一切菩薩[44(·)]不思議[44(·),53(\·),25(|·)]慧[41(·),51(·.)]

B:成就一切菩薩[ㄕ]不思議[ㄕ,〈ㄱ〉,ㄱ ᄉᆞᆫ ㅌ]慧[ㄹ,xᄉᆞ]

C:一切 菩薩ㄕ 思議ㄕ 不〈ㄱ〉ㄱ ᄉᆞᆫ ㅌ 慧ㄹ 成就xᄉᆞ

D:일체 보살의 思議하지 못할 智慧를 성취하며,

ㄴ. 〈진본화엄20〉[94]

A:如是[24(·)]不思議[44(·),53(\·),31(··),11(·.)]

B:如是[ᄎᆞ]不思議[ㄕ,〈ㄱ〉,ㄱ ᄀᆞ,xᄀᆞ]

C:是 如ᄎᆞ 思議ㄕ 不〈ㄱ〉ㄱ ᄀᆞxᄀᆞ

D:이와 같이 思議하지 못할 것이니

마지막으로 53(\·)은 모두 '不思議'에 현토되었는데, (Wㄱ)을 고려하면 부정사에 현토되는 구결점임이 확실하다.

(X) ㄱ. 〈화엄14〉[95]

智慧 自在ᄂᆞᆼ 思議ㄕ 不〈ㄱ〉ㄱ ㄕᄉᆞ 說法ㅌ 言辭 礙ㄕ 無ᄉᆞ{有}

(智慧가 自在하여 思議하지 못하며 說法의 言辭는 막힘 없으며)

ㄴ. 〈주본화엄06〉[96]

A:一切廣大刹[33(·)]億劫[53(·),42(\),구분선]不思議[44(·),22(-),31(··),33(·),41(·)]

B:一切廣大刹[ㄱ]億劫[ㅏ,ㄲ]不思議[ㄕ,〈ㄱ〉,ㄱ ᄀᆞ,ㄱ,ㄹ]

C:一切 廣大 刹ㄱ 億劫ㅏㄲ 思議ㄕ 不〈ㄱ〉ㄱ ᄀᆞㄱ ㄹ

D:一切 廣大 刹土는 億劫에도 思議하지 못할 것이거늘

ㄷ. 〈주본화엄06〉[97]

A:億劫[24(|)]不思議[44(·),22(-),31(··),33(·),53(|)]

B:億劫[ㅐ]不思議[ㄕ,〈ㄱ〉,ㄱ ᄀᆞ,ㄱ,ㄹ ㅏ]

C:億劫ㅐ 思議ㄕ 不〈ㄱ〉ㄱ ᄀᆞㄱ ㄹ ㅏ

D:億劫이 思議하지 못하는 동안에

---

93) 晉本『華嚴經』卷20, 2장 5행.
94) 晉本『華嚴經』卷20, 12장 2행.
95)『華嚴經』卷14, 15장 5행.
96) 周本『華嚴經』卷6, 17장 6행.
97) 周本『華嚴經』卷6, 18장 1행.

‘不思議’는 자토석독구결에서 부정문으로서 현토될 경우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는 (Xㄱ)처럼 부정사로 〈ㄱ〉가 현토되며,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자료에서는 (Xㄴ)과 (Xㄷ)처럼 22(·)[〈ㄱ〉]가 일관되게 현토된다.[98] 따라서 진본 화엄경의 53(\·)도 이와 마찬가지로 〈ㄱ〉로 해독되는 구결점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부정문에 쓰인 45(|·)는 ‘ㅌ’, 32(·)는 ‘ㅁㄱ’, 35(./)는 ‘矢ㅐ’, 53(\·)은 ‘〈ㄱ〉’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본 화엄경에서도 32(·)가 ‘ㅁㄱ’으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는 점, 45(|·)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 위치의 45(-)가 주본 화엄경에서는 ‘ㅌ’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또한 진본 화엄경에서 35(·)는 ‘矢’, 35(/)는 ‘ㅐ’, 35(\.)는 ‘(ㅅ)ㅐ’로 해독되는데, 35(./)와 더불어 모두 [이]라는 말음을 갖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4. 맺음말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하는 구결점:
12(·)[ㄱㄱ], 14(·)[ㄱㄱ], 12(|)[ㅎㅋㄱ]
② 연결어미 '-며'와 관련된 구결점: 52(·)[ㅅㅎ]
③ 조사와 어미에 쓰인 '-과'와 관련된 구결점:
54(i)[ㅅ], 54(/·)[xㅅ], 54(\·)[邑ㅅ], 35(|·)[ㅐ]
④ 부정문과 관련된 구결점:
32(·)[ㅁㄱ], 35(./)[矢ㅐ], 45(|·)[ㅌ], 53(\·)[〈ㄱ〉]

이 가운데, 12(·), 14(·), 12(|), 32(·), 52(·)의 경우 주본 화엄경의 구결점과 그 해독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특히 12위치와 14위치의 나머지 구결점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2위치와 14위치에서 용례가 적어 해독이 어려웠던 12(-), 12(·.)와 같은 구결점들은

98) 이용, 「點吐釋讀口訣 資料의 否定法」, 『口訣硏究』 제24집, 口訣學會, 2010, 97-131면; 문현수, 「점토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국어사연구』 제14호, 국어사학회, 2012, 133-165면.

주본 화엄경의 해독 결과를 참고하면 그 해독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4(i), 54(/·), 54(\·)의 구결점은 모두 'ㅅ'로 끝나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주본 화엄경에서도 54(ㄴ)와 54(ㅣ·)이 'xㅅ'로 해독되는 구결점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ㅌ'로 해독되는 구결점이 진본 화엄경에서는 45(ㅣ·)이고 주본 화엄경에서는 45(-)인 것처럼 두 구결점이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 위치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새로 해독한 35(./)를 비롯하여 동일 위치의 35(·), 35(/), 35(\.)도 모두 [이]라는 말음을 갖는다는 점, 새로 'ㅐ'로 해독한 35(ㅣ·)와 'ㄲ'로 해독되던 35(·.)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조사로서 동일위치에 현토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성주,「주본화엄경과 진본화엄경의 점토석독구결 비교 연구」,『규장각』제30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29-51면.
_____,「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8월 20일-21일, 87-139면.
_____,「석독구결 자료 기림사본『자비도량참법』의 원문 검토와 특징적인 현토 양상 고찰」,『口訣硏究』제37집, 口訣學會, 2016, 39-66면.
남권희・남경란,「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慈悲道場懺法』卷4 殘片의 구결 소개」,『국어사연구』제22호, 국어사학회, 2016, 199-232면.
南豊鉉,『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1999, 태학사.
_____,「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中心으로」,『朝鮮學報』제183집, 朝鮮學會, 2002, 1-22면.
南豊鉉・李丞宰・尹幸舜,「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訓點語と訓點資料』第107輯, 東京: 訓點學會, 2001, 69-102면.
문현수,「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점토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국어사연구』제14호, 국어사학회, 2012, 133-165면.
_____,「『瑜伽師地論』系統 點吐釋讀口訣에 사용된 빼침선의 기능」,『口訣硏究』제33집, 口訣學會, 2014, 249-283면.
_____,「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박진호,「周本『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口訣硏究』제11집, 口訣學會, 2003, 211-247면.
_____,「周本《華嚴經》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口訣硏究』제13집, 口訣學會, 2004, 129-148면.
_____,「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吐 解讀」,『口訣硏究』제16집, 口訣學會, 2006, 173-208면.
석주연,「중세 국어 관형사형의 '-오-'와 古代 漢語 '所'와의 상관성 연구—유형론적 상관성을 중심으로—」,『국어사연구』제20호, 국어사학회, 2015, 371-395면.
안대현,「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口訣硏究』제20집, 口訣學會, 2008a, 259-286면.
_____,「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2)—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國語學』제51집, 國語學會, 2008b, 195-227면.
_____,「『華嚴經疏』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8월 20일-21일, 41-85면.
이 용,「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사의 기능에 대하여」,『口訣硏究』제11집, 口訣學會, 2003, 249-273면.
_____,「點吐釋讀口訣 資料의 否定法」,『口訣硏究』제24집, 口訣學會, 2010, 97-131면.
_____,「『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8월 20일-21일, 141-225면.

李丞宰 외,『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4』, 태학사, 2009a.
_____,『晉本 華嚴經 卷第二十・周本 華嚴經 卷第二十二』, 태학사, 2009b.
장경준 외,『『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2015.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2001, 33-56면.
정재영 외,『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2003.
황선엽,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8월 20일-21일, 3-40면.
황선엽 외,『석독구결사전』, 박문사, 2009.

【Abstract】

Interpretation of the undeciphered kugyol points used in Jinben *Huayanjing* volume 20
—Focused on the kugyol points related with pre-final ending -o [ㆍ]-, conjunctive ending -myə [ᄒᆞ], ending/particle -kwa [ㅅ], and negation—

Moon, Hyun-Soo*

In this article, I made an attempt to interpretate the undeciphered kugyol points used in Jinben *Huayanjing* volume 20.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12 (·), 14 (·), and 12 (|), the kugyol points related with pre-final ending -o [ㆍ]-, are deciphered as hon [ㅅㄱ], hol [ㅅㄹ], sion [ㅁㆍㄱ] respectively. Second, 52 (·), the kugyol point related with conjunctive ending -myə [ᄒᆞ], is deciphered as hʌmyə [ㅅᄒᆞ]. Third, 54 (i), 54 (/·), 54 (\·), and 35 (|·), the kugyol points related with ending/particle -kwa [ㅅ], are deciphered as -kwa [ㅅ], -ʔkwa [xㅅ], -ʌpkwa [ㅂㅅ], -du [ㅐ] respectively. 32 (·), 35 (./), 45 (|·), and 53 (\·), the kugyol points related with negation, are deciphered as -gon [ㅁㄱ], dii [ㅊㅣ], -nʌ [ㅌ], -mo [〈ㅅ〉] respectively.

Keywords: seokdok kugyol, Jinben *Huayanjing*, kugyol points, -o [ㆍ]-, -myə [ᄒᆞ], -kwa [ㅅ], negation.

접수일: 2020.03.30.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06.

* Post-doc,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